

계육산업의 시설집약적 산업전환 절실

—국제경쟁력 제고위해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닭고기 산업이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시설집약적, 자본집약적으로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것이 지적되었다.

한국 농어민 신문사가 구랍 12월 20일(수)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육류수출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닭고기 대일본 수출산업화에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국내 농업에 있어 수입은 국제화로 생산은 규제화로 가고 있는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세계최대의 닭고기 수입국 일본시장과 향후 최대의 수입국으로 지목되는 중국을 지적에 두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 닭고기 냉장육 공급의 기지화를 서두를 것을 강조하였다.

국내 닭고기 산업은 수출산업화를 위하여 전용 도계라인과 가공라인 설치가 요구되며, 닭도 2.5kg이상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시설부문에서는 현재 기존시설에는 한계점을 느끼며 선진국형 시설집약적 대량 생산체제의 도입으로 시설비는

물론 생산비(인건비)의 절약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산업의 전환을 위해 많은 규제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지적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세제 개선으로 축산기자재 및 사료의 영세율 적용, 위탁영농(계열주체-농가간)에 대한 부가세 면세, 축사 신축시 부과되는 세금 감면 등이 논의 되었고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계열화 업체 등 농업

법인과 농어민 금리의 동등적용, 신용한도의 상향조정 △에너지 관리에 대한 개선으로 전기, 가스의 가격인하와 수전설비 무료 지원, 사용규제사항 축소조절 △표준설계도의 상향화 및 다양화 △축사 부지 조성시 서류 간소화 및 축산을 농업의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제도의 농업수준 지원 등이 중점논의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관, 대학, 연구기관, 관련업계 인사 등이 참가하였다.

비타민 C,D첨가계군 골격계질병 발생 감소

육계 품종개량 방향이 단시간에 고중체가 되도록 진행돼 출하일령의 단축과 근육의 비정상적인 증가에 따른 각종 골격계질병의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다. 특히 관절 기형, 경골·연골 발육 부전증, 구루병, 골액막염, 척추탈위증 등 육계의 다리이상과 보행장애는 농가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수의과학연구소는 연구자료에서 육계품종간의 차이는 현실적

인 극복이 어려우나 Vit. D 등의 영양소 흡수불량을 늘리면 경골·연골 발육 부전 현상은 감소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발생 억제를 위하여 1주일 이내에 Vit.D가 함유된 영양제를 사료 첨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입증되었으며, Vit. C Vit. D가 첨가된 사료를 공급한 계군은 무첨가 계군에 비해 질병 발생이 현격히 저하되었다고 밝혔다.

단 신

96하반기 병아리 공급과잉

95년도 육용원종계 수입량 증가로 96년 하반기 이후 병아리 공급과잉이 될 전망이다. 금년말 수입잠정치는 전년도 대비 40%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94년 중반이후 육계값이 회복돼 94년도 강세 또는 강보합세 영향으로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는 병아리 값 하락과 육계값 폭락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육판매 전사원 배송업무

지난해 연말부터 업무를 개시한 닭고기 전문유통업체 영육판매(주)(대표 장희상)는 전임직원이 일대일로

시장에 밀착하는 영업방식으로 시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배송전담 직원없이 시장을 위시한 전 사원이 냉동차를 직접 운전해 신선육을 경인지역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영육판매는 영육농산(대표 김태웅)의 계열회사로 1개월 동안 전 직원이 2~3명씩 한조가 되어 제품출고 냉동차량 운전, 납품을 실시하고 있다. 동사는 시장 등 전직원의 시장밀착 마케팅 방식을 배송 전담팀 채용 후에도 연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매경).

한국가금학회장에 정선부 박사

한국가금학회 회장에 제주시험장 정선부박사가 선출되었다. 한국가금학회는 11월 25일 총회에서 정선부회장과 부회장에 지구민교수(고대), 김선중교수(서울대), 이인형부장(축기연), 박영인박사(USFGC)를 각각 선임하고, 상무이사에 강원대 이규호 박사를 선출하였다.

양계업 외국인투자 97년전면개방

개정경제원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및 허용기준을 개정해 양계, 양돈, 낙농업은 97. 1. 1부터 전면 개방하고, 기타가금사육업은 96. 1. 1부터 개방기로 하였다.

계열화생산 실무책임자회의 개최

본회 계열화생산 실무책임자회의가 지난 12월6일(수)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계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많은 노력으로 생산비절감에 접근이 가능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계열생산, 농가현황문제, 질병대책, 사육정보교환 등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동회의는 매일 3번째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매일 한가지 주제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1월 17일(수)에 열리며 각사별 95계열

닭 복수증 조기진단위해 박차

국내서도 피해, 수의과학연구소 서둘러 대책마련 부심

수의과학연구소는 닭 복수증 발병억제와 발병조짐 조기과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육계에서 나타나는 복수증은 복부팽대 증상으로 급사하는데 그 원인이 명확치 않으며, 남미의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던것이 최근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민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94년 부터 수의과학연구소 측에서는 조기진단과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병원인이 명확치 않은 질병의 과약을 위하여 과학적 환경요인 측정, 컴퓨터 영양분석, 혈액내 이산화 탄소 분석 등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탈리아, 가금산업 매년 꾸준한 성장 과잉생산 불안요소도 내재

이탈리아의 가금생산업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로 성장하고 있으나 불안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계육 및 계란의 자급율이 거의 100%로 과잉생산에 따른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다.

94년도의 이탈리아 가금생산은 1백7만6백톤으로 전체 축산물의 21.5%인 5조1천억리라이며 전년도 대비 가금육 2.07%, 계란 12%의 증가를 보였으며 소비증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연간 18.78kg의 가금육과 219개의 달걀을 소비

한다.

육계시장은 12개 주요회사가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큰 4개 회사가 시장을 60%이상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완전계열화 업체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95년도 들어서도 옥수수 30%, 대두 20% 정도 상승해 사료값이 오르는데 반해 생산물 가격은 과잉생산으로 하락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브로일러 5%, 칠면조 8%, 계란 0.55%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오존 활용으로 계육 오염 크게 감소시켜

미국 알칸사 대학은 한 수질회사와의 공동연구에서 냉각중 오존을 사용해 계육의 오염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3.9°C~9°C의 온도에서 45분간 냉각한 오존농도는 0.6ppm으로 1분당 60mg의 오존이 처리되었다.

또한 2차로 같은 농도로 3.5°C에서 10분간, 6.5°C에서 45분간 노출시킨 결과 호기성세균수 감소는 99.8%로, 대장균 수는 90%나 감소해 오존처리에 의한 계육의 세균수 감소는 99.9% 이상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러시아 질병으로 닭생산 감소

러시아는 닭생산이 30%이상 감소하고 있다.

최근 질병과 경제적인 원인으로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마렉, 콕시듐 등 질병외에 대장균증, 감보로증도 만연되고 있다. 백신사용 등 정상적인 예방법이 수행되면 10~20%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화 사육실적 및 문제점, 96년 생산계획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KFC 직영점포 100개 돌파

닭고기전문 외식업체인 KFC가 목동1매장(목동)을 12월초 개장함으로써 84년 4월 1호점을 종로2가에 개설한 이래 12년만에 직영점 100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KFC는 매년 8~9개의 직영점을 개점해 서울에 63개, 수도권에 20개, 지방 17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95년도에만 5천만명이 이용해 국민 1인당 1회이상 KFC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니커 "사업기반 다지는해" 선언

미원마니커는 96년을 '사업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매출 750억 달성을 위한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통닭위주판매에서 부분육, 가공품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사는 이를 위해 마니커 프라자 닭고기 직판장 운영과 BBQ치킨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며 또한 사내 협동체제 확립을 위한 한마음 축제도 년 2회 개최하고 복리후생 확대, 성과급제도 운영등 닭고기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에 노력할 예정이다.

태진기계 품질인증(EM)신청

도계기기 생산업체인 (주)태진기계(대표 김선유)는 공업진흥청에 품질인증(EM마크) 신청을 출원중이다. 협소한 시장성과 도계기계 산업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계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온 동사는 앞으로 외국 수출과 국내 도계기기 수준의 향상을 위해 몸체이송가공기, 개복기, 내장 적출기 등 8개 기계에 대하여 97~99%의 국산화로 EM마크 신청을 하게되었다. EM마크를 획득하게 되면 동기계에 대하여 공진청이

품질을 보증하게 되어 수출산업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일식품-농원으로 통합운영

(주)한일농원(대표 차상협)은 96년 1월 1일부터 한일농원을 합병해 운영한다.

이로써 한일농원은 관리부와 종계사업부, 이사사업부, 계육사업부 외에 계열화사업부, 도계사업부로 운영키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체리브로 협력농가 전진대회

(주)체리브로(대표 김인식)는 지난해 12월 28일 진천관광호텔에서 협력농가 사업전진대회를 가졌다. 동사 계열사육 협력농가 50여개 대표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95년 송년회를 겸하고 우수농가 표창, 위로회 순으로 이어졌으며 96년을 맞아 더욱 발전을 다짐했다.

95년도 닭고기 소비촉진사업 활발

-사료, 병아리, 양축가 참여도 높아야-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광고가 95년도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회가 회원사들의 정성어린 특별회비(광고비)로 양계협회 자조금 사업을 통해 집행한 95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에는 총3억1천여만원의 들여 4대 일간지 스포츠 신문 등 일간신문에 12회, 축산관련 신문에 14회, 여성지 잡지와 식육잡지에 칼라 광고 16회 등 광고를 실시하였다. 경비관계로 TV방영은 못하고 KBS, MBC 전국라디오에 여성대상 및 주부프로그램을 위주로 년290회를 방송하였다.

한편 대중 광고외에 미래의 주부인 여고생, 여대생 4천 70명을 대상으로 학교 조리실습 및 닭고기 영양강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닭고기 우수성 포스터 제작, 배포, 홍보책자 제작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홍보비 모금에 있어 계열주체를 제외한 양계인 관련산업 관계자의 참여가 전혀 없어 아쉬움이 컸다.

금년도 광고비 모금을 위해 사료, 병아리 업계와 양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부업규모 축산 20% 상향조정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경제 장관회의에서 닭사육 부업규모 기준 마리 수를 현행보다 20% 상향조정(1만 2천수이하) 하였다. 이에 따라 96년 1월부터 사료 부가세 영세를 적용 대상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부업농 규모의 사육수수로는 경쟁력이 없어 정치적인 전시행정으로 농민들은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축산농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배합사료부가세 영세를 전면적으로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육계배설 질소량 절감기술개발

일본 축산시험장 영양부 제3 연구실은 사료중 단백질의 양과 질을 제어해 육계의 배설질소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육계의 사료 단백질수준을 21%에서 19%로 낮추거나 급여단백질의 필수아미노산비율을 낮게해 배설질소량을 20% 절감할 수 있으며, 저단백질 사료급여시 문제가 되는 지방축적의 증가는 사료중 필수아미노산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배설질소

량을 20%줄일 수 있게 된다면 환경보호에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수아미노산을 많이 혹은 균형있게 급여할 경우 사료첨가용 외에 비싼 아미노산의 첨가가 불가피해 비용부담이 되므로 현단계의 실용화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앞으로 가축분뇨문제 해결의 과제는 환경부하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상품화의 여지는 있다고 보아진다.

태국, 닭고기 생산에 박차

태국 농업협동조합성은 향후 5년간 사육규모를 20% 증산해 수출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태국의 닭고기산업은 생산비의 상승 및 내수소비신장으로 다른수출국과의 가격차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있다.

태국의 닭고기 수출은 95년 말부터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에 있으며 2001년까지 생산 사육규모를 약 20% 늘려나갈 계획이다.

1월 닭고기 우수성 광고

MBC-AM
09:30~
여성시대 2부
15:40~
양희경의 트로트 가요 3부
KBS-2R 16:30~
오후의 대행진 2부

에 이 비 안

대한 양계협회 능력검정에서 4회 연속1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타품종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주)증원농장**
영업부 TEL.(0417)567-7792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